

“섬, 알아가면 다가온다” ... 보석같은 섬 30곳 여행 가이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섬에서의 하룻밤

김민수 지음

정중한 바다와 풍성한 먹거리, 푸른 송림, 끝없이 펼쳐진 해변...



섬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다. 누구나 섬에 대한 로망이 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이들에게 섬은 한번쯤 가고 싶은 낙원 같은 곳이다.

요즘은 섬 여행이 새로운 레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섬을 찾는 이들이 많다. 코로나로 북적거리리는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섬을 얻기 위해서다.

섬 여행가 김민수는 캠핑 마니아다. 섬이 좋아 스스로를 섬 여행가라 칭한다. 그는 글과 사진이 좋아 여행 작가가 됐다. 그가 이번에 섬 여행 에세이를 펴냈다. 서해 최북단 대청도부터 남해 추자도, 동해 울릉도까지 30곳의 섬을 다룬 '섬에서의 하룻밤'이 그것. 밤하늘 별빛과 파도소리가 어우러진 섬 캠핑, 민박, 차박까지 어우러진 풍경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저자는 지금까지 유수의 여행전문지와 방송매체

에 섬 여행을 소개해왔다. '백령에서 울릉까지' 20개 섬을 52일간 쉬지 않고 여행했으며 일본 규슈 캠핑장 70여 곳을 취재했다. 지금까지 섬 여행과 캠핑에 대한 강의는 물론 컨설팅으로 섬과 여행 사이에 자신만의 '다리'를 놓고 있다.

저자의 섬 여행에는 기준이 있다. 하룻밤은 기본이며 넉넉한 시간을 갖고 섬의 속살까지 알뜰히 살피고 느껴보는 것이다. 섬을 알아가수록 섬이 다가오는 이유다.

책에 소개된 섬은 대체로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곳이다. 남쪽의 명품 섬 관매도를 비롯해, 머나먼 야생의 섬 맹골도, 청산이 수려한 청산도, 서해5도의 보석 섬 대청도, 다도해의 최남단 거문도, 섬 트레킹의 맛을 볼 수 있는 추자도까지 보석같은 섬들이 등장한다.

맹골도는 이름부터 이색적이다. '맹수같이 사나운 바다를 끼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한때는 풍량이 거칠면 뱃머리를 돌리기 일쑤여서 '맹탕 골탕만 먹이는 섬'이라는 푸념이 전해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풍경은 더없이 아름답다. "죽도 등대의 불빛이 바다와 섬을 돌아 춤을 추고", "정결한 어둠 사이로 춤추며 쏟아지는 별빛"은 섬의 이름과는 다른 경이로움을 준다.

청산도의 풍경도 한 폭의 그림과 같다. 특히 봄에 들른 청산도는 압권이다. 당리 언덕과 포구까지 들러 잔 노란 유채꽃과 구석구석에 널실대는 청보리는 마치 '봄의 왈츠'를 들려주는 것 같다.

만재도의 옛 이름은 '면도'였다. 만재도에 들어서면 고립감과 만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이곳에는 만두산을 배경으로 하나의 마을이 꼬막처럼 박혀 있다. 낚은 가옥과 가옥 사이에 드리워



여수 시도 양면해변의 텐트 한 동. 양면해변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탁월한 바다 전망에 고즈넉함까지 더해 최상의 캠핑 사이트를 제공한다. <파람북 제공>

진 돌담은 미로를 닮았다. 그럼에도 '짜지'라 불리는 몽돌해변은 초승달을 닮아 정겹기 그지없다.

저자는 거문도를 가을 섬의 끝판왕이라 표현한다. 다도해의 최남단, 여느 섬과는 다른 아우리를 발산한다.

"밤을 잊은 고깃배들이 큰 바다로 나서고 구름은 달빛을 가르며 유유히 흘러다. 사각사각한 바람이 불살을 스칠 때마다 소주병은 조금씩 비워졌고, 경이로운 밤 풍경은 좋은 안주가 되었다. 침낭을 펼쳐

놓고도 쉽사리 잠을 청하지 못한 것은 순간의 느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서였다."

어청도는 으뜸 등대를 가진 천혜의 피항지다. 빨간 지붕, 아치형 미닫이 문으로 이루어진 등대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절벽으로 이어진 돌담길과 등대 주위의 반원형의 터는 비할 데 없는 풍광을 선사한다.

각각의 섬들은 저마다 개성과 인간미를 지닌 친구로 다가온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보면 그림

이 밀려온다.

저자는 "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섬은 그 자체로 가치를 따질 수 없이 소중한 관광 자원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정책의 방향에는 여러 전문가의 고견이 반영되어 있겠지만, 섬을 사랑하는 여행자의 입장에서 섬에 똑같은 유니폼을 입히는 것만큼은 반대한다"고 말한다.

<파람북·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디에도 없는 아이

크리스티안 화이트 지음·김하현 옮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스텔러. 이 책을 읽고 나면 며칠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책을 소개하는 글이 강렬하게 호기심을 자극한다. 베스트셀러 '우먼 인 위드'의 저자 A.J. 핀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로 책의 보편성과 독창성을 강조했다. 바로 호주 출신 소설가 크리스티안 화이트의 '어디에도 없는 아이'.



'숨막히게 재미있는 소설'이라는 평을 받으며 17개국에서 판권이 팔렸으며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빅토리아 프리머 문학상 수상과 호주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끌었다.

서사는 멤버론에서 사진 강사로 일하는 김벌리 리미는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접근해, 그녀가 28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납치 사건의 사라진 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말문이 막힌다. 그러나 하나둘씩 증거가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급박하게 전개된다.

행복한 어린 시절과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결국 자신이 납치된 아이라는 기억으로 뒤집혀간다. 평화롭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든다. 그녀는 직접 자신이 납치됐다는 어린 시절을 찾기 위해 오래 전 납치되었다는 마을을 찾아가는

스토리는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슬픔과 죄책감이 모든 이들에게 남겨지지만, 삶의 무게를 견디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누가 내 편이며 무엇이 진실일까?

<현암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이를 크게 키운 고전 한마디

김재욱 지음

"충만한 사람이 조금만 읽어서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지만, 둔한 사람에게 많은 분량을 익히도록 하는 것은 마치 약한 말에 무거운 짐을 실은 것과 같으니 어찌 멀리 갈 이치가 있겠는가?"(이덕무)

모든 부모의 한결 같은 바람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또한 잘된다는 기준 또한 제각각이고 부모의 철학에 따라 저마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삼국지인물전'의 저자 김재욱 박사의 책 '아이를 크게 키운 고전 한마디'는 옛 선현들의 지혜를 토대로 엮은 자녀 교육서다. 팟캐스트 방송, 칼럼 등으로 대중과 만나는 저자는 이번 책에서 이덕무, 맹자, 장유, 최한기, 순자, 정약용, 박지원, 공자, 노자 등과 같은 인물의 저서에서 가려 뽑은 문장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전한다.

저자가 인용한 선현들의 문장 가운데는 오래도록 기억되는 글도 있다. 최한기의 "밤낮으로 가르쳐 중도에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성취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은 자제에게 달려 있는 문제일 뿐, 부형에게 달려 있지 않다"와 같은 부분은 한번쯤 곱씹어 볼 만 하다.

책의 내용을 토대로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눠도 좋은 내용도 담겨 있다. 비록 옛 사람의 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합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밖에 '천천히 걸어야 멀리 간다', '공부에 정해진 때는 없다', '아이의 공부에 아이의 것', '외보다 중요한 것',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 '그레도 선행을 하는 게 낫다' 등 일상에서 필요한 지혜를 유려한 문체로 풀어낸다.

<한솔수북·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

이진우 지음

철학자 이진우는 현재 우리가 '극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극단'은 한계를 모르는 무한한 욕망의 다른 이름이다. 한계 없는 자본주의의 극단적 경향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라고 말한다.

니체 전문가 철학자 이진우 포스트ек 교수가 극단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철학적 지혜를 탐색한 책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어떻게 인생의 중심을 지킬 것인가'를 펴냈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철학을 살마리 삼아 지혜를 전한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극단의 시대, 그리스 철학에게 묻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삶에서 왜 균형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2부 '감정과 사고의 균형'에서는 직관과 추론, 전체와 부분, 능동과 수동, 이성과 감정 등 서로 대립되는 가치에 유혹받는 인간이 욕망과 정념을 인정하면 서로 자유로울 수 있는 실존의 방법을 '스토아 철학'을 통해 찾아낸다.

이어 3부 '균형 연습'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일해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가 있어야 행복한가?' 등에 대해 묻고 답하며 워라벨, 고독, 빈곤 등의 의미를 되새긴다.

마지막 4부 '자기 창조 방법'은 삶을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고찰한다.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도 없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다시 삶을 성찰하고, 삶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플루엔셜·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